

###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OECD 28개국 중 3위” 경총,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OECD 28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에 속하고,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또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정책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2018~2019)간 29.1%, 5년(2015~2019)간 60.3%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28개국) 평균 인상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나라인 리투아니아는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약 3~10배 가량 높았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29.1%였던 반면 일본 3.1%, 독일 3.9%, 프랑스 2.8%, 영국 9.5%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간 인상률은 한국이 60.3%를 기록했지만 일본 11.4%, 독일 8.1%, 프랑스 5.2%, 영국 21.1%로 크게 차이났다.

또한 경총이 OECD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60.3%로 조사됐다.

OECD 28개국 평균은 54.7%(중위임금 대비), 43.4%(평균임금 대비)로 집계됐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경총은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 20~30대 “전월세 하락 체감 못해”...중장년층 “노후대비”



“공직 생활을 하면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려고 빚내더라도 주택을 매입해서 세를 놓는 거거든요. 전월세 값이 높다고 하는데 불가 고려하면 주인 입장에서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부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정모(52)씨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2가구를 들어 세를 받고 있다. 정씨는 노후를 대비하는 중장년층

지수는 0.04% 떨어졌다. 하락세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집세 지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꺾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초년생,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 월세는 울퉁불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대방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원룸, 투·스리룸 등록매물의

터 팀장은 “일부 구를 제외하면 울퉁불퉁 전반적으로 서울지역 원룸 투·스리룸 월세가 하락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집세 지수도 하락세로 접어든 만큼 당분간 전·월세 가격의 하락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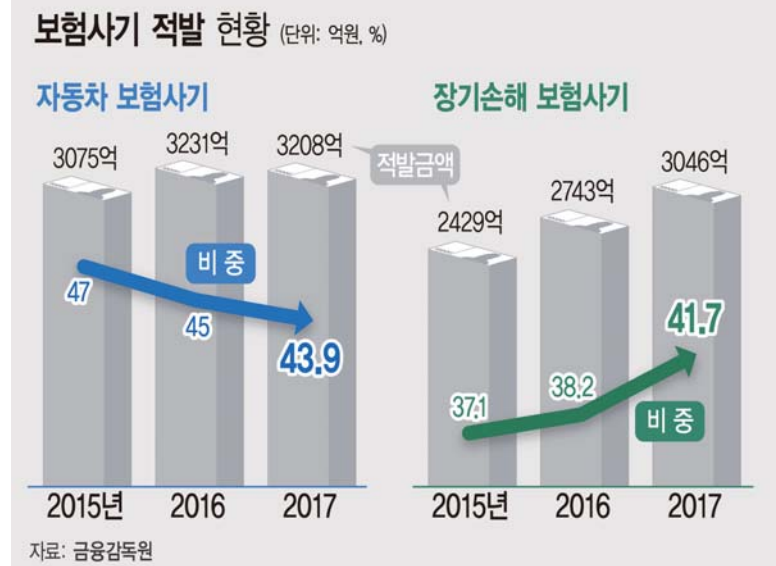
서울지역 전셋가격도 2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첫째주(6일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가격은 0.02%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다섯째주(-0.01%)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가격 역시 0.07%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은 집값이 여전히 터무니없이 높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사회초년생 이모(29)씨는 최근 월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겨 2억짜리 전셋집을 장만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면 위치나 채광 등은 포기해야해 직장과 먼 거리에서 출퇴근할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는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고 산다.

이씨는 “사회초년생 월급은 평균 200만원이고 많이 봤자 300만원인데 그중 관장은 집을 구하려고 하면 기본 월세 50만원에 관리비, 보증금 대출이자까지 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며 “집값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충분히 내린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퇴직을 앞둔 신모(57)씨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 못한 건 아니지만 퇴직시기도 빨라지고 있고 퇴직하고 할만한 일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의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집을 10채씩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랑 우리처럼 생계를 위해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엄연히 다른데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할때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차보험사기 줄고 장기손해 보험사기 늘어난 까닭은?

# 정형외과에 방문한 A씨는 병원 직원의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 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몇년 전만 해도 보험사기하면 자동차보험사기를 떠올렸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장기손해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기손해보험사기란 1년이 넘는 장기보험상품을 이용한 사기를 의미하는데 최근 그 비중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장기손해보험사기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4.6%p 늘었다.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같은 기간 47%에서 43.9%로 3.1%p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장기손해보험사기 비중은 왜 자동차보험사기와 달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우선 허위·과다입원 유형의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과다입원 및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기는 계획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성 보험사기’와 보험금 청구 시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연성 보험사기’로 구분되는데 상대적으로 보험소비자는 연성 보험사기에 너그러운 편이다.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

2015년 37.1%→2017년 41.7%

허위·과다입원 유형 큰 폭 증가

보험사기 범죄행위 인식 부족해

다른 계약자들 보험료 인상시켜

적어 나온다. 보험사기가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피해를 입혔어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다.

변혜원·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법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더 많은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4050대 “안정적 생활 위해 노후 대비용 투자” 2030대 “평균 월급 고려하면 더 떨어져야 해”

에게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지만 임대세·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요즘 같은 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정씨는 “노후를 위해 지금의 다가구주택을 팔고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오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매할 계획이 있지만 대출이 막혀 매매도 잘 되지 않는다”며 “인근 주택은 전세가 3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까지 내려갔는데도 안 나가서 주인들이 역으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노후대비를 위해 무리해 부동산을 매입한 중장년층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6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주택 전·월세 비용 지출을 나타내는 ‘집세 지수’는 104.1(2015년=100)으로 1년전 같은달보다 0.02% 하락했다. 집세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06년 3월(-0.1%) 이후 13년 1개월만에 처음이다.

전월세비로 따져도 지난해 집세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결과 서울 원룸 월세 평균은 51만원으로 석달 연속 떨어졌다.

서대문구와 용산구가 각각 8만원, 5만원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동구, 송파구 원룸 월세는 최근 1년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투·스리룸의 경우 평균 월세는 64만원으로 최근 1년중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다.

강규호 스테이션3 데이터 분석센

### 제 858회차 당첨결과 (2019년 5월 11일 추첨)

9 13 32 38 39 43 + 23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9	2,202,347,459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41	80,573,68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075	1,592,05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6,17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89,295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간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약정일임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